

대한병리학회의 창립과 발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병리학교실

지 제 근

The Korean Society of Pathologists: Historical Overview

Je G, Chi, M.D.

Department of Path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The Korean Society of Pathologists was founded in October 1, 1946, during turmoil period, one year after the end of the Second World War. Only handful of pathologists gathered for delivery of the Society by the leading role of late Professor Il Sun Yun, then Professor of Pathology of newly assembled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Most of Korean pathologists who became the founding members of the Society, were those who worked as professors or assistants at the Pathology Departments of Keijo Imperial University Faculty of Medicine, Keijo Medical College, Severance Union Medical College and Keijo Women's Medical College during Japanese colonial occupation.

In the first meeting Dr. Il Sun Yun was elected to be the first president of the Society and Dr. Chae Koo Lee as vice president. Study and research in the field of pathology and exchange of academic information and knowledge among the members were the purpose of the Society. Since 1947 the Society had held a regular academic meeting annually under the auspices of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KMA) until 1956. From the 10th convention in 1958 the Society had its own meeting separate from KMA with average number of paper presentation of 60.

The pathology specialist system was adopted in 1963. Three categories, i.e., anatomical pathology, clinical pathology and combined anatomical and clinical pathology were opened. As of 1991 a total of 662 pathologists is registered, which consists of 343 anatomical pathologists, 291 clinical pathologist and 28 combined anatomical and clinical pathologists.

In 1967 the official Journal of the Society "The Korean Journal of Pathology" began to be published. Until 1976 the Journal was issued biannually and has grown to quarterly journal 1977 and now bimonthly periodical(ISSN 0379-1149) with average articles of 15 per issue.

From 1976, academic activities of the Society were expanded by opening the spring meeting in addition to the conventional annual autumn meeting. In 1992, the Society adopted board of trustee system.

The Korean Society of Pathologists joined the World Congress of Pathology as a member in 1975. And currently the Society serves division member of International Academy of Pathology.

As of December 1992, the Society has a total membership of 357. There are 92 council members, 3 special study groups and several special committees. The Society provides 2 annual conventions, 8 monthly slide seminars, 2 workshops and 4 to 5 short courses annually. (**Korean J Pathol 1993; 27: 307~317**)

Key Words: History, Pathology, Korea

접 수: 1993년 1월 9일, 게재승인: 1993년 5월 8일
주 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건동 28, 우편번호 119-799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병리학교실, 지제근

서 론

우리나라에 병리학이 어떤 경로를 통하여 도입되고

발전하게 되었는지는 대단히 흥미로운 과제가 틀림없으나 이를 고증하는 일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러나 학문이 발전하려면 학회의 활동이 불가결이니 병리학의 발전도 결국 병리학회의 활동과 연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우리나라에서 조국 광복 후 창립된 대한병리학회를 중심으로 학회의 창립 과정과 그 발전과정을 연대별로 기술하기로 한다. 미리 양해를 구할 것은 학회와 관련된 자료의 보존이 불충분하여 기술된 내용중 착오나 누락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한병리학회의 창립>

대한병리학회는 1946년 10월 1일에 창립되었다. 1945년 8월 15일 조국광복이 된지 1년만에 우리나라 병리학자들이 모여 처음으로 우리의 학회를 가지게 된 것이다. 광복 후 1년만에 학회를 결성할 수 있었던 것은 일제 강점기간 동안에도 우리나라의 병리학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학교별로 여러사람들이 꾸준히 실력을 쌓고, 논문을 발표하는 등 어느정도의 준비과정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학회는 개인모임이 아니고 학술단체이기 때문에 학회의 창립멤버는 당연히 당시 의과대학 병리학교실이 중심이 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1945년 8월 15일 당시 한국인이 교실원으로 재직하고 있던 경성제국대학 의학부의 2개 병리학교실, 경성의학전문학교 병리학교실,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 병리학교실 그리고 경성여자의학전문학교 병리학교실이 있었다. 물론 당시에 대구의학전문학교, 평양의학전문학교, 광주의학전문학교등이 있었으나 병리학교실에는 조수 이상의 자격을 가진 한국인이 없었던 것 같다. 광복전 에서부터 이미 병리학자로서 많은 활동을 하고 특히 한국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윤일선(尹日善)교수는 해방이 되면서 오랫동안 교수로 근무하던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를 사직하고 경성대학 의학부(옛 경성제국대학 의학부)의 책임자로 부임하고 그 이듬해 경성대학 의학부와 경성의학전문학교를 통합하여 만든(1946.10.15) 국립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병리학 교수가 되었다¹⁾. 당시 조선의학회 회장이기도 하던 윤일선 교수는 무엇보다도 병리학회의 창립이 절실하다고 느끼고 해방전 경성의학전문학교 병리학교실 교수로 재임하다가 광복후 국립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병리학교수로 부임한 이제구(李濟九)교수와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 병리학교실의 이응렬(李應洌)교수 그리고 몇몇 분들과 함께 발기인대회 및 창립모임을 가지게 되었다. 창립모임은 10월 1일에 있었고 장소는 옛날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병리학교실이던 당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병리학교실의 회의실이었다. 창립모임에 참석한 분이 정확히 몇 분 이었는지는 기록을 참조할 수 없으나 확인된 분들의 이름은 다음과 같다²⁻⁴⁾. 즉 윤일선(尹日善), 이제구(李濟九), 이응렬(李應洌), 정창수(鄭昌洙), 홍석재(洪

錫宰), 남창춘(南昌春), 박우균(朴雨均), 현인섭(玄寅燮), 김영제(金永濟), 안부호(安富浩), 김동식(金東式), 구국회(具國會)이상 12분이다. 이 회의에서 회칙이 채택되었다는 기록은 없으며 다만 회장에 윤일선 교수, 부회장에 이제구 교수를 선출한 것으로 되어 있다. 추측컨대 12명 정도의 모임이기 때문에 우선 창립을 하고 회장단만 선출하고 기타의 일은 이후로 미룬 것이 아닌가 한다. 대한병리학회가 조선병리학회로 창립된 1946년 10월 1일은 사회적으로 보면 광복(1945.8.15) 다음해로 군정청에 보건후생부가 독립하고(1946.3.), 38선 무허가 월경금지가 선언되고(1946.5.24), 학제가 6.6.4년제로 결정된(1946.9.1)때였고 창립(1946.10.1) 당일은 대구폭동사건이 발생하는등 정치사회적으로 불안정한 시기였다. 의료계로는 충북, 경기, 강원, 전북, 전남등의 도의사회가 창립된 해였다. 병리학회의 창립은 학회로는 1945년에 창립된 정신신경과학회, 소아과학회, 피부비뇨기과학회, 방사선과학회, 생리학회, 내과학회에이어 분과학회로는 7번째로 그리고 기초의학회로는 생리학회(1945.11.30.)에 이어 두번째로 창립된 것이었다^{5,6)}. 사실 이 시기는 대한의학협회도 창립되기 전이고 여러가지로 사회가 혼란한 시기였기 때문에 실제로 최소한의 교육(학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외에는 학문활동을 할 여유가 없고 더욱이 학회 학술모임을 할 겨를이 없었다고 추측된다. 이 와중에 병리학회의 선구자들이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한 것은 학회의 자랑이라 할 수 있다.

<대한병리학회의 발전>

1. 학술활동

1) 일반학술행사(Table 1, 2)

전술한 바와 같이 1946년 10월 우리나라의 여타 학회에 비하여 비교적 빠르게 학회를 창립한 대한병리학회는 1945년부터 시작하여 새로 생기는 병리학교실이 점차 늘어감에 따라 점차 그 회원이 증가하고 따라서 학술활동이 점차 활발하게 되었다. 기존의 의학전문학교도 모두 의과대학이 되어 세브란스의과대학 서울여자의과대학이 되었고 대구의학전문학교는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그리고 광주의학전문학교는 전남대학교의과대학이 되었으며 여기에 모두 병리학교실이 생기게 되었다. 한편 기존의 의과대학의 병리학교실도 교실원이 점차 증가하면서 차차 자리가 잡혀가기 시작하였다. 1947년 5월에 대한의학협회 제 1 회 학술대회에 병리학회도 참여하여 학술발표를 하였다. 2회 3회를 지나면서 학술활동이 점차 증가하였다. 그러나 1950년 6월의 한국동란의 발발은 그동안 어려운 여건에서 병리학이라는 기초의학의 맥을 이으려는 여러사람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다. 사람들은 뿔뿔이 헤어지고 기물은 손실되고 많은 중요한 기록은 소실되었다. 따라서 1950년과 1951년에는 전쟁중이라 전혀 학술활동

Table 1. Successive annual autumn convention of the Korean Society of Pathologists

Serial No.	Date	Place	Number of papers presented
제 1회	1947. 5. 10	서울의대	13
제 2회	1948. 5. 28	서울의대	23
제 3회	1949. 10. 22	서울의대	13
제 4회	1952. 5. 11	부 산	?
제 5회	1953. 5. 30	부 산	6
제 6회	1954. 6. 20	서울의대	18
제 7회	1955. 6. 11	서울의대	14
제 8회	1956. 5. 26.	서울의대	15
제 9회	1957. 6. 8.	서울의대	32
제 10회	1958. 6. 17.	서울의대	21
제 11회	1959. 10. 10.	부산의대	47
제 12회	1960. 10. 9.	수도의대	62
제 13회	1961. 10. 14.	서울의대	62
제 14회	1962. 10. 27.	가톨릭의대	54
제 15회	1963. 11. 9.	연세의대	48
제 16회	1964. 10. 9.	연세의대	45
제 17회	1965. 10. 16.	이화의대	64
제 18회	1966. 10. 2.	서울의대	60
제 19회	1967. 10. 14.	경북의대	61
제 20회	1968. 10. 12.	우석의대	60
제 21회	1969. 10. 24.	전남의대	60
제 22회	1970. 10.	가톨릭의대	60
제 23회	1971. 10. 16	연세의대	57
제 24회	1972. 10. 23.	이화의대	72
제 25회	1973. 10. 23.	부산의대	72
제 26회	1974. 10. 25.	한양의대	87
제 27회	1975. 10. 17.	경북의대	94
제 28회	1976. 10. 15.	중앙의대	87
제 29회	1977. 10. 21-22.	한양의대	92
제 30회	1978. 10. 19-20.	서울의대	109
제 31회	1979. 10. 12-13.	경북의대	102
제 32회	1980. 10. 16-18.	연세의대	110
제 33회	1981. 10. 15-17.	경주코오롱호텔	146
제 34회	1982. 10. 21-22.	서울의대	109
제 35회	1983. 10. 20-22.	가톨릭의대	146
제 36회	1984. 10. 10-12.	서울힐튼호텔 (종합학술대회)	44
제 37회	1985. 10. 17-18.	가톨릭의대	109
제 38회	1986. 10. 16-18.	경북의대	147
제 39회	1987. 10. 22-24.	연세의대	168
제 40회	1988. 10. 20-22.	전북의대	219
제 41회	1989. 10. 19-21.	서울대관악캠퍼스	209
제 42회	1990. 10. 18-20.	대구금호호텔	232
제 43회	1991. 10. 17-19.	고려의대	220
제 44회	1992. 10. 22-24.	고려의대	262

Table 2. Successive annual spring meeting of the Korean Society of Pathologists

Serial No.	Date	Place	Number of papers presented
1	1976. 5. 29.	충남의대	0
2	1977. 5. 26.	온양관광호텔	2
3	1978. 5. 19-20	전북의대	?
4	1979. 5. 18-19.	속리산관광호텔	?
5	1980. 5. 16-17.	유성관광호텔	56
6	1981. 5. 28-30.	설악파크호텔	56
7	1982. 5. 14-16.	정주내장산관광호텔	62
8	1983. 5. 26-28.	부산극동호텔	76
9	1984. 5. 24-25.	광주신양파크호텔	93
10	1985. 5. 17-18.	정주내장산관광호텔	79
11	1986. 5. 23-24.	유성관광호텔	95
12	1987. 5. 22-23.	부산코모도호텔	107
13	1988. 5. 20-21.	충남도고호텔	167
14	1989. 5. 11-13.	제주오리엔탈호텔	162
15	1990. 5. 18-19.	유성리베라호텔	201
16	1991. 5. 17-18.	서울리베라호텔	167
17	1992. 5. 22-23.	경주힐튼호텔	174

이 없었고 1952년 5월 11, 12일 대한의학협회 학술대회를 부산에 피난내려가 있던 이화대학교 가교사에서 가졌는데 병리학회에서는 여기에서 연제들 제출하여 발표하였다.

1954년 6월 20일에는 환도후 처음으로 제 6회 학술대회를 대한의학협회와 함께 종합학술대회로 가졌는데 이때는 18연제가 제출 발표되었다. 1955년에는 병리학회 연제가 14연제였으며 1956년에는 15연제를 발표하였다. 이듬해인 1957년 6월 8, 9일에 서울에서 개최된 제 9회 의학 종합학술대회에서는 병리학회가 제 3강연장(서울의대 제 3강의실)을 따로 배정받아 32연제를 가지고 학술대회를 가지게 되었다. 즉 1957년은 휴전후 환도하여 각 대학의 교실이 전쟁의 고난을 어느정도 극복하고 다시 학문활동의 시작을 해라고 생각되며, 그동안 온갖 어려움 중에서 대한병리학회가 전쟁중의 2년(1950년, 1951년)만 제외하고는 계속 학술대회를 가졌다는 사실은 병리학 선현들이 병리학을 아끼고 사랑하는 충정의 발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1957년의 학술대회 발표연제가 32편에 달하자 병리학회는 이제는 독립적으로 학회를 가져야 할 필요성을 느꼈고 따라서 1958년 즉 제 10회 학술대회부터는 독립행사로 개최하게 되었다. 즉 종합학술대회가 아닌 대한병리학회 학술대회가 되었고 명칭도 제 10회에서 제 10차로 하였다. 제 10차 학술대회는 1958년 6월 17일 서울의대에서 개최되었고 21연제가 발표되었다.

이때 논문을 발표한 기관과 연재수는 서울의대(11) 연세의대(2), 전남의대(2), 성신의대(2), 부산의대(2), 국립결핵요양소(1)등이었다. 1959년부터는 학술대회의 시기를 학회가 창립된 달인 가을(10월)에 열기로 하여 10월 10일 부산의대에서 가졌으며 여기에서는 47연제가 발표되었다. 이후 해를 거듭할 수록 발표논문의 수와 질이 모두 향상되었으며 1960년 및 1961년에는 각각 62연제가 되었다. 그리고 1963년 이후 1972년(24차 학술대회)까지의 약 10년간 학회에서는 60연제 내외의 논문이 발표되었는데 이 시기가 각 대학단위로 비교적 안정되게 학문활동을 영위하던 시기라고 판단된다. 물론 이 시기는 많은 수의 병리학자가 미국으로 건너가고 의대 졸업생의 상당수가 미국으로 취업하였기 때문에 각 교실마다 교실원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고 또 있던 교실원도 미국으로 이민 혹은 취업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여러면에서 학문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었던 시기이었으나 국내에 남아있던 병리학자들이 애쓴 보람이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넘긴 것이라고 여겨진다.

학회에서 발표되는 연재의 수가 60편 내외로 안정 추세에 이르자 학회는 그동안 숙원 사업이던 대한병리학회지를 창간할 것을 결의하고 드디어 1967년 9월 30일 현재의 『대한병리학회지』의 창간호를 발간하게 되었다. 처음에 연 2회 발간하였는데 그 첫 2권은 그동안 학회에서 발표되었던 연재와 초록집을 중심으로 편집하였다. 이 학회지는 그 후 꾸준히 발전하여 1977년에 계간으로 그리고 1991년에는 격월간으로 증가되었다(Table 3). 이 학회지에 관한 역사적 기술은 이미 발표⁷⁾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한다.

한편 1963년 대한병리학회는 오랫동안 논의 끝에 결정하게 된 병리전문의 제도를 처음 도입하여 20명의 해부병리전문의, 12명의 임상병리전문의 그리고 26명의 해부 및 임상병리 전문의를 배출하였다. 1980년부터 임상병리전문의는 분리 독립된 임상병리학회에서 주관하였고 해부 및 임상병리전문의 제도는 없어졌다. 1991년 현재 전문의 자격을 가진 사람은 662명이며 이중 343명이 해부병리전문의이고 291명이 임상병리전문의이다(Table 4). 학회와 관련되어 우리나라의 전문의 제도에 관한 역사적 고찰도 이미 발표⁸⁾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한다.

1973년 제 25차 춘계학술대회 부터 학회는 특별강연과 일반연제를 조화있게 다루었고 발표하는 방법도 많이 향상되게 되었다. 이해 발표된 일반연제는 93연제였고 그 내용도 다양할 뿐 아니라 참여한 기관수도 대폭 증가하였다. 이미 1972년 7월에 충남의대에 병리학교실이 생겼고, 1973년 9월에 중앙의대에 병리학교실이 생겼으며, 그 이듬해인 1974년 3월에는 전북의대에 병리학교실이 생기면서 학회의 소속 기관수가 대폭 증가하였을 뿐 아니라 이미 외국에서의 유학의 과정을 마치고 고국으로 다시 돌아온 병리학자들의 수

Table 3. The Korean Journal of Pathology. The number of papers per issued number by year

Year	Articles	Pages	Issues	Copies
1967	6	48	2	500
1968	18	136	2	500
1969	10	65	2	500
1970	16	155	2	500
1971	16	164	2	500
1972	13	169	2	500
1973	11	137	2	500
1974	17	163	2	500
1975	29	258	2	500
1976	33	283	2	500
1977	40	405	4	500
1978	47	453	4	500
1979	53	515	4	500
1980	57	468	4	500
1981	60	517	4	500
1982	123	894	4	500
1983	73	505	4	500
1984	67	470	4	500
1985	71	481	4	500
1986	72	503	4	500
1987	44	319	4	500
1988	74	511	4	500
1989	61	493	4	500
1990	63	512	4	500
1991	79	612	6	500
1992	90	639	6	500

도 점차 증가하여 학회의 학술활동의 점차 활발하게 되었다. 이에 관한 사항은 월례집담회에서도 단적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에관한 사항은 이미 기술되었다⁹⁾. 그 결과 1975년 10월 평의원회에서는 가을에 있는 연례 학술대회에 추가하여 봄학회를 따로 갖도록 결정하고 이해 5월 29일에 제 1차 춘계학술대회를 충남의대에서 가졌고 이때부터 10월 학회를 추계학술대회로 부르게 되었다. 제 1차 춘계학회는 매월 서울에서 가지는 월례슬라이드 집담회를 지방에서 개최한다는 정도로 하였으나 1977년 부터는 봄학회에서는 연재발표가 시작되었고 이러한 학술활동은 해를 거듭할 수록 더욱 활성화 되었다. 이와같이 당시의 병리학회는 매년 2개의 학술대회, 매월 시행하는 해부병리집담회(슬라이드 세미나) 및 임상병리집담회등 실로 활발한 학술활동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창간당시 원고난에 시달리던 대한병리학회지는 년 4회로 그 발간 횟수를 증가하였으며 병리의 전공의 과정에 들어오는 의대 졸업생수도 점차 증가하게 되었다.

Table 4. Number of qualified specialists in Pathology in Korea by year

Year	Anatomic Pathology	Clinical Pathology	Combined AP & CP	Total
1963	20	12	26	58
1964	6	5	2	13
1965	2	3	0	5
1966	4	6	0	10
1967	2	3	0	5
1968	5	2	0	7
1969	1	2	0	3
1970	3	5	0	8
1971	3	0	0	3
1972	3	2	0	5
1973	3	0	0	3
1974	2	3	0	5
1975	5	5	0	10
1976	6	4	0	10
1977	5	3	0	8
1978	22	7	0	29
1979	9	8	0	17
1980	10	9	0	19
1981	18	9	0	27
1982	17	17	0	34
1983	33	30	0	63
1984	18	20	0	38
1985	22	18	0	40
1986	14	16	0	30
1987	18	25	0	43
1988	15	8	0	23
1989	22	22	0	44
1990	26	27	0	53
1991	29	20	0	49
Total	343	291	28	662

AP: Anatomic Pathology CP: Clinical Pathology

2) 특별학술행사

춘계학술대회가 새로 생기면서 연제의 숫적 증가도 문제였지만 전문의 제도가 자리를 잡으면서 수련의의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과 또 이미 전문의를 취득하고 근무하는 전문의들을 위한 보수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결과 학회에서는 1979년부터 단기과정(short course)을 시작하기로 결정하고 그 시기는 가을학회 개최기간중 동시에 하기로 하였다. 1979년 10월 2개의 단기과정이 개설되었는데 이중달 교수의 『골종양』과 김용일 교수의 『간생검』이었다. 미리 증례를 배부하고 학회당일 그 증례에 대하여 설명하고 해설하고 또 단행본을 배부하는 형식을 가졌으며 대개 50~

80명이 전문의 및 전공의가 참석하였고 2시간 정도 계속되었다. 1983년까지 2개씩 가을 학회에서만 하던 것을 1984년 부터는 봄학회때에도 시행하였다. 이 단기과정은 대단히 성공적이었으며 이것은 특히 전공의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고 또 강사들이 전공에 따라 결정되었기 때문에 학회내에서 병리학의 세부전공 즉 소화기병리, 골병리, 신경병리, 세포병리, 피부병리 등의 전문가가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반응이 점차 좋아지자 1986년 봄학회때는 6개의 단기과정을 개설한 바 있다. 그러나 준비상의 어려움도 있고하여 1987년 부터는 다시 1년에 4~5개씩 개설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한편 하루종일 과정인 보수교육이 1년에 두번씩 학회의 학술대회와 상관없이 개최되었는데 보수교육은 대개 주관자를 위촉하여 강사진을 구성하여 한가지 토픽을 집중적으로 취급하는 형식을 가져왔다. 이에 관한 교재(단행본)를 가지고 병리와 주변분야를 다루는 것으로 매해 4월과 9월에 두번씩 보수교육을 개최하고 있다.

2. 회장, 임원 및 평의원회

1) 회장 및 임원(Table 5)

1946년 창립총회에서 회장에 윤일선 교수 그리고 부회장에 이제구 교수가 선출된 후 1958년 제 13대 회장까지의 13년간은 임원이 따로 없이 회장단만 있었다. 따라서 회장단이 근무하던 서울대 병리학교실이 주관이 되어 그동안의 학회 활동을 하였고 학회사무도 병리학교실에서 맡아 하게 되었다.

1958년 제 10차 병리학회부터 독립하여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됨에 따라 총회도 자연스럽게 병리학회 회원들만 모이게 되었고 따라서 이해 5월에는 평의원회를 구성하게 되었다. 그리고 1960년에는 그동안의 회칙을 일부 개정하여 각종 임원을 두기로 하되 당시 기존의 병리학회에 병원병리학 특히 해부병리학과 임상병리학이 대두됨에 따라 제 1부를 해부병리분야로 그리고 제 2부를 임상병리분야를 관장하는 것으로 하였다. 그결과 회장에 윤일선, 부회장에 이제구, 제 1부장에 이성수(李聖洙), 제 2부장에 이삼열(李三悅), 총무에 이상국(李尙國), 그리고 재무에 김상인(金相仁)이 각각 선출되었다. 그리고 제 1부 간사에는 김순웅(金順應), 이호영(李鎬泳), 이유복(李有福), 그리고 제 2부 간사에는 박승함(朴承咸),姜得龍(姜得龍), 김병규로 하였다.

1961년에 윤일선 회장은 서울대학교총장에서 정년 퇴임하면서 대한병리학회회장을 사임하였다. 새 회장에 이제구 교수가 취임하였고 윤일선교수는 명예회장으로 추대되었다. 한편 부회장은 최일훈(崔日薰)교수가 선임되었다. 1962년 부터는 부회장을 2인으로 하되 한분은 해부병리분야 그리고 또 한분은 임상병리분야에서 선임하기로 하여 1962년 총회에서는 회장 이제구, 부회장 김동식, 안부호, 제 1부장 이성수, 제

Table 5. Successive officers of the Korean Society of Pathologists

Year	President	Vice President	1st Division	2nd Division	Secretary	Treasurer
1946-1958	윤일선	이제구				
1959	윤일선	이제구	이성수	이삼열	이상국	김상인
1960	윤일선	이제구	이성수	이삼열	이상국	김상인
1961	이제구	최일훈	이성수	이삼열	이상국	김상인
1962	이제구	김동식 · 안부호	이성수	김기홍	김온자	김상인
1963	이제구	김기홍 · 홍석재	이호영	이종무	김온자	김상인
1964	이제구	김기홍 · 김영제	이상국	이종무	합의근	김상인
1965	이제구	김기홍 · 김영제	이상국	이종무	합의근	김상인
1966	이제구	김기홍 · 홍석재	이상국	이종무	합의근	김상인
1967	이제구	최일훈 · 김기홍	이상국	이종무	합의근	김상인
1968	이제구	최일훈 · 안부호	이유복	백승룡	합의근	김상인
1969	이제구	김영제 · 안부호	최 진	강득용	합의근	지제근
1970	김영제	홍석재 · 김기홍	최 진	이삼열	이종무	박승함
1971	김동식	최 진 · 안부호	이유복	이삼열	김지환	?
1972	정창수	이상국 · 김상인	백승룡	강득용	합의근	김용일
1973	김기홍	이상국 · 김상인	윤택구	이종무	김용일	이대일
1974	홍석재	이상국 · 김상인	문국진	강득용	김용일	이대일
1975	안부호	이상국 · 이종무	최인준	강득용	김용일	이대일
1976	구국회	이상국 · 김상인	합의근	지정희	지제근	김종만
1977	이상국	이유복 · 이종무	이중달	고일향	합의근	지제근
1978	김중명	이상국? ? 김상인	?	?	조한익	?
1979	이유복	백승룡 · 강득용	최인준	? 지정희	이대일	김정숙
1980	정재홍	최인준? 강득용	? 이중달	?	이대일	이중달
1981	백승룡	합의근 · 이종무	최인준	문영희	이대일	양문호
1982	이종무	최인준 · 고일향	합의근	이중달	이대일	김주성
1983	조규혁	? ?	?	?	지제근	최호열
1984	최 진	? ?	?	?	지제근	김선무
1985	손태중	최인준 · 합의근	이중달	김용일	지제근	양문호
1986	최인준	합의근 · 이태숙	이중달	김용일	양문호	박찬일
1987	김상호	합의근 · 문세광	이중달	김용일	양문호	최호열
1988	합의근	허만하 · 김종만	이중달	김용일	양문호	박찬일
1989	이태숙	박규호 · 윤택구	이중달	김용일	양문호	박찬일
1990	고일향	석동수 · 김용일	이대일 · 지제근 · 박찬일		양문호	박찬일
1991	문세광	이중달 · 이선경	이대일 · 지제근 · 박찬일		최종상	송계용
1992	이중달	지제근 · 장은숙			최종상	이동화
	박찬일(이사장)					

2부장 김기홍, 총무 김온자, 재무 김상인의 임원진으로 구성되게 되었다. 1966년 10월 총회에서는 그 동안의 회칙을 일부개정하여 그동안 실제로 운영하여오던 제 1부와 제 2부를 공식화 하였다. 이제구 교수는 1969년 제 25대 회장까지 9년간 회장을 역임하고 사임하였다. 1946년에 시작하여 이후 23년 동안 윤일선 교수와 이제구 교수 두분의 회장이 각각 14년과 9년이라는 오랜 기간을 학회를 위한 책임을 맡아하셨다. 그러나 23년이 지난 그 당시에는 이미 병리학회 내에 많은 원로 교수들이 계셨고 또 한분이 너무 오랜 책임

을 맡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어 1970년부터는 회장의 임기는 1년 단임제로 하고 부회장은 해부병리와 임상병리 분야의 두명을 추대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1970년 김영제 교수, 1971년 김동식 교수, 1972년 정창수 교수, 1973년 김기홍 교수 등으로 이어져 나갔다. 한편 회장이 단임제가 되면서 회무의 연속성을 위하여 학회 총무는 수년간 연임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윤일선 회장의 1960년 까지는 오랫동안 이상국 교수가 도맡아 수고하였으며 이제구 교수가 회장을 맡으면서 이상국 교수(3년), 김온자 교수(2년),

Table 6. Council members of the Korean Society of Pathologists by year of first appointment during 1958 to 1976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1. 현인섭	0	0	0	0	0	0													
2. 김영제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3. 김동식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4. 구국회	0	0	0	0															0
5. 안부호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6. 박영집	0	0	0	0	0		0	0											
7. 이성수	0	0	0	0	0	0													
8. 최일훈	0	0			0		0	0	0	0	0								
9. 김순응		0																	
10. 남천우		0	0	0	0	0	0	0	0	0	0	0							
11. 홍석재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2. 황기석			0	0	0	0													
13. 박희영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4. 박두복			0			0				0	0	0	0	0	0	0	0	0	0
15. 이삼열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6. 김기홍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7. 강득용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8. 이진순			0																
19. 주정균			0																
20. 신영서			0																
21. 김기전			0																
22. 이종관			0																
23. 김상인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4. 박승합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5. 이제구				0	0	0													
26. 정재홍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7. 정창수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8. 이종무					0	0	0								0	0	0	0	0
29. 장관식					0														
30. 이유복						0	0	0	0	0	0	0	0	0	0	0	0	0	0
31. 김중명							0	0	0	0	0	0	0	0	0	0	0	0	0
32. 이규선							0	0	0	0	0	0	0	0	0	0			
33. 이상국							0	0	0	0	0	0	0	0	0	0	0	0	0
34. 장원용							0	0	0										
35. 조상연							0	0	0	0	0								
36. 지정희							0	0	0	0	0	0	0	0	0	0	0	0	0
37. 문세광							0	0	0	0	0								0
38. 지세근										0	0								0
39. 강상균										0	0	0	0	0	0	0	0	0	0
40. 김종만												0							
41. 허만하												0	0	0	0	0	0	0	0
42. 정동규												0	0	0					0
43. 김선무												0	0	0					0
44. 박태수												0	0	0		0			0
45. 민경환												0							
46. 김지환														0					
47. 김창세														0	0	0			
48. 조규혁															0	0	0	0	0

Table 6. Continued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49. 최인준															0	0	0	0	0
50. 윤택구															0	0	0	0	0
51. 함의근																0	0	0	0
52. 김용일																0	0	0	0
53. 이선경																0	0	0	0
54. 최진																0	0	0	0
55. 백승룡																0	0	0	0
56. 이대일																0	0	0	0
57. 고일향																0	0	0	0
58. 조명준																0	0	0	0
59. 채범석																0	0	0	0
60. 김기홍(적십자)																0	0	0	0
61. 문영희																0	0	0	0
62. 문국진																	0	0	0
63. 이종달																			0
64. 김상호																			0
65. 김순호																			0
66. 김옥경																			0
67. 김정숙																			0
68. 김재식																			0
69. 김주성																			0

함의근 교수(6년)등이 수고하였다. 학회 재무는 1960년 부터 1969년까지 만 10년간 김상인 교수가 연임하였다. 한편 1971년 이후는 회장이 근무하는 기관에서 총무를 임명하였으나 회장의 순환이 서울과 지방을 교대한다는 원칙이 불문불로 있었기 때문에 지방에서 회장이 선출된 경우에는 서울에 있는 회원중에서 총무를 임명하게 되었다.

2) 평의원 및 평의원회(Table 6)

1946년 학회 창립 후 학술활동을 시작한 하였으나 학회 단위로 학술대회를 가지지는 못하고 있다가 1958년 부터 독자적 학술대회를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 그전까지는 회장 부회장만으로 구성되어 있던 학회가 처음으로 평의원회를 구성하게 되었다. 초대평의원(1958년)은 이화의대 현인섭 교수, 전남의대 김영제 교수, 연세의대 김동식 교수, 수도의대 구국희 교수, 전남의대 안부호 교수, 부산의대 박영집 교수, 서울의대 이성수 교수 그리고 이화의대 최일훈 교수등 8분이었다. 이 무렵에는 의과대학 수가 7개 뿐이었고 이후 점차 의대가 증설되는 바람에 자리 바꿈이 비교적 많았다. 1959년에는 김영제 교수의 소속이 가톨릭의대로 바뀌고 전남의대의 남천우 교수가 평의원이 되었다.

1960년이 되면 학회내에 제 1부장(해부병리 담당) 과 제 2부장(임상병리 담당)이 생기면서 평의원도 학

교별로 두 분(해부병리 1명, 임상병리 1명)을 선출한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군진에서 각 군대표 평의원이 선임되어 총 20명의 평의원이 되었다. 1961년 오랫동안 학회장으로 수고하신 윤일선 교수의 후임으로 이제 구 교수가 회장이 되면서 평의원이 다시 바뀌는데 김상인 교수, 박승함 선생, 정재홍 선생 그리고 정창수 교수가 새로 임명되었다. 그 이후에도 해가 바뀌면서 그 명단의 변경이 있다가 1969년 이후에는 별세나 해외 이주 등의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해촉은 없고 새로 추가만 되는 형식을 채택하였으며 따라서 평의원 수는 해마다 증가하였다. 평의원의 자격은 대학의 부교수 이상인 사람과, 병리전문의 수련을 하고 있는 병원(대학병원이 아닌경우)의 과장으로서 평의원의 추천으로 평의원회에서 인준되었다. 따라서 해당병원의 과장을 그만두고 대학의 전임강사나 조교수로 임명된 경우 자연히 평의원의 자격은 정지되었다.

평의원회는 학회의 최고 의결기관이고 학회 임원을 선출하고 주요사안을 처리하는 기구였기 때문에 인원이 점차 많아짐에 따라 소집하기가 번거롭고 정원을 채우기도 어려워 1976년부터는 상임평의원이란 제도를 편법으로 만들어 사용하였다. 학회회칙에는 없으나 1970년대 후반부터는 모든것을 상임평의원회에서 결정하고 평의원회에서는 보고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1977년까지 평의원을 지낸분들을 위촉 연도별로 열거

Table 7. Total number of registered member of the Korean Society of Pathologists by year

Year	Number
1946	20
1950	40
1955	80
1960	120
1961	150
1965	215
1970	137
1975	138
1980	190
1985	266
1990	300
1992	357

하면 Table 6과 같다. 1980년 임상병리학회가 분리 독립되면서 평의원중 임상병리학회에 등록된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한병리학회 평의원 명단에서 제외되었고 각 수련 병원에서도 해부병리 관계 수련 책임자가 평의원에 임명되게 되었다. 1992년 현재 평의원 총수는 92명이다.

3) 회원수(Table 7)

창립시 20여명이던 회원은 점차 증가하여 전쟁후 1960년에는 86명이 되었고 1970년에는 137명, 1975년 138명, 1980년 190명, 1985년 266명이었다. 임상병리학회가 분리된 후 몇년동안 감소하였다가 그후 다시 증가하여 1990년 300명, 그리고 1992년 현재는 357명이다.

3. 새학회 분리와 연구회의 발족

1946년 대한병리학회가 창립될 때에는 우리나라 의학이 일본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었다. 일본의학은 물론 구라파 특히 독일의 영향을 받았다. 물론 우리나라 의학중 미국의 영향을 받은 면이 없지 않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진료를 위한 임상의학이 주가 되었을 뿐 학문적 계통이 공식적으로 전수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광복 후 일본식 의학과 새로 들어오는 미국의 영향 사이에서 자리를 채잡지 못하고 방황하던 시기에 6.25 동란이 발발하였고 이때부터는 대대적으로 미국과의 교류가 생기면서 급속한 변천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 와중에서도 병리학회는 학문영역을 넓히면서 꾸준히 발전하였다. 이중 제일먼저 참여한 것이 대한법의학회의 창립(1976. 11.)이었으며, 그후에 대한임상병리학회의 독립(1980. 10.) 그리고 대한세포병리학회의 창립(1986. 5.)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장차의 학회의 가능성을 가지는 전문분야별 연구회를 발족시켜왔다.

1) 대한법의학회

1976년 11월 6일 당시 병리학회 회장이던 이제구 교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병리학회 회원중 각 대학을 대표하는 분들(최진, 문국진, 이상덕, 김기호, 백승룡)과 국립과학 수사연구소, 법의감정위원회, 경찰공의협회 대표등이 회동하여 대한법의학회를 발족시켰다. 초대 임원은 회장 이제구 교수, 부회장 김동식, 김만달 교수, 총무 문국진 교수로 구성되었다. 물론 대한병리학회 평의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창립되지는 않았으나 초창기 이 학회의 주요 구성원이 당시 병리학회 회원이었다는 점으로 보아 대한병리학회가 그 모체가 되었다고 해서 무리가 없다고 본다.

2) 임상병리학회

미국을 중심으로 한 병원병리학의 중요성은 병리학이 병원의 진료행위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이것이 미국식 병원제도가 구라파식 병원제도 보다 특히 전공의 수련과정에서의 우수성이 부각되면서 일찌기 병리과(Pathology Department)는 병원의 필수 불가결한 진료과로서 자리잡았다. 한국동란과 더불어 미국식 병원제도가 우리나라에 제일 먼저 노출된 것은 미국병원의 진료제도였다. 한국에 주둔한 미국병원에도 군병원급에는 모두 병리과라는 것이 있고 작은 후송병원에도 병리시험과라는 것이 있었고, 또 한국 군의관들이 유학갔던 미국 본토의 육군병원이나 해군병원급에는 병리과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게되었다. 한편 민간인으로 전쟁중 혹은 전쟁후 미국에 건너간 의대졸업생중에서는 병리과라는 것이 병원에서 내과나 외과와 같은 진료과로 되어 있음을 보고 한편 놀라고 한편 그 필요성을 이해하게 되었다.

미국의 병리전문의 제도에 해부병리학(Anatomic Pathology)와 임상병리학(Clinical Pathology)의 구분이 되어 있고 이중 임상병리가 병원에서의 임상검사업무를 통괄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현대병원에서 여러가지 복잡한 검사종목이 증가하면서 이를 전공하는 전문가가 필요하게 된것은 분명하며, 우리나라에서도 임상병리만을 전공하는 사람이 필요할 것이라는 주장에 따라 병리학회내에서 임상병리분야에 종사하는 학자들이 학회를 독립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게 되었다. 대한병리학회가 창립된 1946년부터 1950년대까지는 재래식 병리학의 개념에 따른 행사가 주로 되었으나 1960년도에 들어서 미국식 병원병리학, 특히 임상병리학이란 개념이 도입되고 발전되면서 이 방면의 발전이 두드러졌다. 그 결과 대한병원급에 임상병리과가 설치되고 또 대학에는 임상병리학교실이 창설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여기에 임상병리기사 문제까지 겹쳐서 임상병리의 세가 점차 커지면서 기존 병리학회의 테두리에서는 충분한 발전을 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게 되었다. 워낙 시작은 전문의를 독립시키기 위한 것이었으나 결국 학회까지 독립하기로 하여 1980년 10월 17일 그동안 대한병리학회의 울타리안에서 활동하던 임

상병리학자들이 대한임상병리학회를 창립하고 그 초대 회장에 한양의대의 김기홍 교수를 추대하였다. 이 학회는 바로 임상병리 전문의의 수련 및 시험평가등에 관한 사항을 메어서 관장하게 되었고 그 이듬해(1981. 12.) 대한임상병리학회지를 창간하여 명실공히 대한병리학회에서 완전 독립하여 독자적 학술활동을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3) 대한세포병리학회

세포병리학은 진단병리학에 중요한 부분으로 일찌기 세포병리학에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던 회원들이 많았고 또 이 분야는 국민의 보건향상에도 큰 공헌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학회에서는 일찌기 학회내에 세포병리학 소위원회를 두고 학문발전을 독려하였다. 그러다가 1986년 5월 24일 대한 세포병리학회들 발기하고 창립총회를 가지고 그 초대 회장으로 병리학회장을 역임한 계명의대의 정재홍 교수를 추대하였다. 그후 세포병리학회는 해마다 5월에 병리학회 춘계학술대회에 이어 년차 학술대회를 가졌으며 또 1991년부터는 서울을 중심으로 세포표본을 기관별로 순환하여 보면서 그 증례를 토의하는 월례집담회를 운영하면서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 1990년에는 학술지인 『대한세포병리학회지』를 창간하고 연 2회 발간하고 있다. 1992년에 국제세포학회에 가입하였다.

4) 특수연구회

특수분야의 병리학에 흥미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학술집담회를 하는것을 권장하기로 하여 병리학회에서는 1988년 5월 20일 정기평의회에서 대한병리학회 특수학술연구회 설치규정을 통과시켰다. 이 규정에 의거하여 그동안 활동중이던 림프관내계 및 조혈계 연구회가 발족되었고, 1988년 5월에는 신경병리학 연구회가 발족하였고, 1990년에는 소화기병리학 연구회가 발족되었다. 림프관내계 및 조혈계 연구회는 전북의대 김상호교수를 초대 대표로하고 이종달 교수가 간사를 맡았으며 1989년 6월 25일에는 제 1회 한일 혈액 및 림프관내계 워크숍을 제주도에서 개최하였다. 이 연구회는 매달 월례집담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1991년에는 일본 구마모토에서 제 2회 한일 모임을 가졌으며 현재 활동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전국을 상대로한 한국인의 악성림프종에 관한 조사를 수행하였다.

1988년 5월 발족한 신경병리연구회는 초대 대표에 전남의대 조규혁교수를 추대하고 지제근 교수가 간사를 맡았다. 발족하면서 『한국인 중추신경계 종양의 조직학적 유형에 대한 조사』를 전국적으로 시행하여 학회에서 발표하였다. 이후 매달 학술집담회를 슬라이드 세미나와 특강 형식으로 개최하고 있다. 1990년 10월에 발족한 소화기병리학 연구회는 초대 대표에 서울의대 김용일 교수를 추대하고 박찬일 교수가 간사를 맡았다. 매달 집담회에서는 증례발표와 슬라이드 토의가 있으며 그동안 위암의 취급에 대한 연구회안을 제안함으로써 학회 회원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4. 국제적 교류

병리학회가 창립한 후 특정한 외국과 공식적 교류를 가졌다는 기록은 없다. 1959년 월례 슬라이드 집담회가 시작되면서 당시 국립의료원에 근무하던 서구의 병리학과 집담회를 통한 학술교류가 그 처음이라 할 수 있으나 학회차원의 것은 아니었고, 또 당시 주한미8군 병원의 병리군외관들이 이 집담회에 참석하므로서 학문의 교류를 하였다고 할 수 있다¹⁾. 1975년 학회는 세계병리학회 회원으로 가입하였다. 1981년에는 대한병리학회가 International Academy of Pathology의 아세아 지구에 가입하였다. 현재는 한국지부로 활동하고 있으며 1990년 제 1회 지부모임을 일본과 함께 개최한 이래 제 3회에 이르고 있다.

맺 음 말

대한 병리학회는 우리나라에 서양의학이 들어온지 58년 후 그리고 조국광복 다음해인 1946년 10월 1일에 대한의학협회 분과학회로는 7번째로, 그리고 기초의학회로는 2번째로 창립되었다. 창립당시의 회원은 모두 일본의 의학제도에서 공부하였던 분들로서 국립서울대학교 의과대학과 세브란스 의과대학 병리학교실에 근무하던 분들이 주가 되었다. 이후 점차로 늘어나는 신설 의과대학의 병리학교실과 함께 병리학회도 차차 자리를 잡아가려는 때에 6.25 한국전쟁이 1950년에 발발하였다. 그나마 간직하고 있던 학문적 재산을 전쟁으로 잃고 학문은 후퇴할 수 밖에 없었지만 이것이 계기가 되어 미국식 의학이 대거 도입되었다. 그것은 전쟁중 미군을 통한 영향과 한국의대 출신들의 미국유학에 힘입은 바 크다고 할 수 있다. 전쟁이 끝나면서 각대학의 병리학 교실은 다시 정비되기 시작하였고 따라서 병리학회 학술활동도 차차 활발하게 되었다. 1963년에 병리전문의 제도가 생기고, 1967년에는 병리학회지를 발간하였고 회원수는 점차 증가하였다. 병원병리학이 각광을 받으면서 해부병리학과 임상병리학의 개념이 부각되었고 임상병리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이 점차 많아지면서 1980년에는 임상병리학회도 분리 독립되었다. 대한세포병리학회도 분리되었고, 학회내에는 수개의 학술연구회가 창설되었다. 학회는 창립 후 45년을 보내면서 이제는 350여명의 회원이 연 2회의 학술대회, 8회의 월례집담회, 2회의 보수교육, 4~5개의 단기과정등 활발한 학술활동을 하고 있다.

참 고 문 헌

- 1) 이상국, 지제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병리학교실사. 병리소식지 4~7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병리학교실 발행, 1991~1992.
- 2) 윤일선 교수와의 개인적 교신

- 3) 이제구 교수와의 개인적 교신
 - 4) 大韓病理學會沿革 大韓病理學會誌 1967; 1: 1.
 - 5) 大韓醫學協會, 分科學會協議學會略史 1979; 319.
 - 6) 大韓醫學協會, 大韓醫學協會 70年史 1979; 267-288, 489.
 - 7) 지제근. 대한병리학회지 25년의 결산. 대한병리학회지 1991; 25: 497-508.
 - 8) 지제근. 우리나라 병리전문의 제도의 어제와 오늘. 대한병리학회지 1992; 26: 537-42.
 - 9) 지제근. 대한병리학회 월례슬라이드 집담회-30주년을 맞은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대한병리학회지 1989; 23: 403-9.
-